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쓰꾸바대학교 예술학과 연구원
로스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재직 (1982~2010)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개인전 |

- 2025 그들에게 경의를 (맥화랑, 부산)
Yellow Line, 천인의 얼굴 (이웰갤러리, 부산)
- 2024 뜻밖의 맘 (김아트필드미술관, 부산)
- 2017 김정명전 (인디프레스, 서울)
- 2015 김정명 말풍선 시리즈 2001~2012 (김아트필드미술관, 부산)
- 2015 내 마음의 장식장 (김아트필드미술관, 부산)
- 2012 환골탈태 (갤러리아름, 부산)
- 2010 한국의 팝아트 김정명展 (신세계 갤러리, 부산)
- 2008 SIPA 특별 초대전 (한가람 미술관, 서울)
사각속의 뜬구름 (사비나미술관, 서울)
김정명의 머리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07 KBS 부산총국 개국 72주년 기념 초대전 (KBS 부산갤러리, 부산)
- 2006 머리들 (김아트필드미술관, 부산)
- 2003 EMPTY (수가화랑, 부산)
- 2002 욕망의 포로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리지, 캘리포니아, 미국)
- 2000 Yellow, LINE (대안공간 섬, 부산)
김정명 작품 책 모음展 1982~2000 교보문고 정보센터 개관기념 초대전 (교보갤러리, 부산)
- 1998 冊展, 김정명 (롯데화랑, 부산)
- 1996 서울그룹초대 (서울)
- 1993 김정명 작품전 (동백아트센터기획초대, 부산)
- 1990 김정명展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김정명展 (갤러리 누보, 부산)
김정명展 (사인화랑, 부산)

그 외 다수.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 2026 Frieze Seoul - Spotlight(솔로부스) (COEX, 서울)
Kiaf SEOUL (COEX, 서울)
- 2025 신형상미술, 삶의 언어가 되다 (권정호미술관, 대구)
맥화랑연례기획전 19th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 2020 1960~70년대 부산미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7 조각의 미학적 변용(모란미술관, 경기도)
- 2012 아트쇼 부산(벡스코) 두레라움 스프링-춘몽, 영화의 전당 야외조각 설치전 (부산)
- 2011 전북도립미술관 기획전 상상바이러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10 부산비엔날레 (광안리해수욕장, 부산)
환상동화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9 The Head-인간의 거울 (김아트필드미술관, 부산)
한국 현대 조각의 흐름과 양상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07 영화의 재구성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05 미술과 수학의 교감 (사비나미술관, 서울)
- 2001 이미지 변용과 사물들-부산 미술의 조형적 계보찾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0 서양미술사 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 1999 대안공간 섬 개관기념전 (부산)
판화, 예술, 책전 (문예진흥원, 서울)
- 1998 20C 한국미술, 부산지역을 통해서 본 환경과 미술 (롯데화랑, 부산)
PICAF 국제 조각심포지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1997 올해의 한국미술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한국미술 9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6 한국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금호갤러리, 서울)

그 외 다수.

| 전시서문 |

그들에게 경의를(To Them, With Honor)

그들에게 경의를 - 파편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술의 계보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정명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회화와 조각, 오브제와 설치를 넘나드는 경계적 실험을 일찍이 자신의 조형 언어로 삼았으며, 1970년대 중반의 <스크랩>과 <빨> 시리즈를 시작으로, <프레임과 캔버스>, <카렌다>, <책>, <손가락>, <공룡>, <혀>, <뽕>, <포켓>, <말풍선>, <큰머리>에 이르는 연작을 통해 일상의 사물과 만화적 기호, 역사와 신화, 교육과 놀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형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업은 언제나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며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을 은근하면서도 날카롭게 환기시킨다.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을 공부한 뒤 1982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교육자로 활약한 그는, 작가이자 연구자로 살아온 세월만큼 폭넓은 층위를 작품 안에 커췌이 축적해 왔다. 이번 개인전 <그들에게 경의를>는 그의 궤적의 가장 최근 지점인 <예술인자> (2021-)와 <그들에게 경의를>(2023-) 시리즈를 중심으로 회화·입체·설치 작업을 한 자리에서 조망한다. 오랜 세월 “그림은 결국 그 시대의 정신”이라 믿으며 “남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실천해 온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예술사의 더욱 넓은 맥락 속에 다시 위치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파손된 물감에서 발견한 ‘예술인자’

이번 전시의 출발점은 의외로 ‘사고’에 가까운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대형 아크릴 작업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을 때, 작가는 그 파편 속에서 칸딘스키, 폴록, 마티스, 피카소, 모네 등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흔적을 떠올렸다. 작은 물감 조각들 속에서 그는 “작가들의 DNA”를 보았다고 말한다. 단순한 물질적 잔해가 아니라, 예술의 역사와 미감, 실험과 실패의 흔적이 응축된 “정신의 보석”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예술인자> 시리즈(2021-)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버려질 법한 물감 파편에 머리와 꼬리를 부여해 유리판 위에 유평하는 생명체처럼 배치하는 행위는, 재료를 조형적 요소로 다루는 차원을 넘어 ‘예술이 또 다른 삶으로 환생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물감은 더 이상 그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형상을 갖고 말을 건네는 존재가 된다. 작가가 말하듯, 이 물감 부스러기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신의 값진 보석”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태도는 김정명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문명 비판적 시선과도 맞닿아 있다. <책>, <손가락>, <말풍선>, <큰머리> 시리즈에서 작가는 지식과 정보, 이미지의 과잉 속에서 발생하는 공허와 긴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예술인자>에서는 그 비판적 시선이 ‘파편’이라는 형태로 응축되며, 그 속에서 다시 생성의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는 “비판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원적 대답이기도 하다.

영화와의 교감, 그리고 ‘그들에게 경의’

2021년부터 이어진 <에너지 교감> 연작에서 김정명은 영화 인쇄물을 구겨 요철을 만들고, 그 위를 유리판으로 덮은 뒤 물감을 안팎으로 유동시키며 옛 작품과의 교차점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원작의 재현이나 패러디가 아니라, 이미지와 재료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긴장과 교감이다. <그들에게 경의를> 시리즈(2023-)는 이러한 교감의 방식을 한층 직접적으로 확장한 작업이다. 워홀, 바스키아, 피카소, 모네, 마네 등의 초상과 작품, 상징적 요소는 작가의 선택과 조형 감각, 그리고 물감 파편에서 비롯된 에너지와 만나 입체 회화로 재탄생한다. 어릴 적 집안에 걸려 있던 성인·현인들의 초상과, 학창 시절 방에 붙였던 음악가·문학가의 사진을 떠올리며 작가는 자문한다. “정작 나에게 큰 영향을 준 미술가들의 사진은 왜 붙이지 못했을까?” 독창성에 대한 집착, 야류와 답습에 대한 알레그리로 인해 “미술가의 사진”을 방에 걸지 못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 그는 그들과의 거리두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빛’과 ‘감사’를 ‘경의’라는 형태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나 역시 그 계보의 한 끝에 서 있다”는 자기 인식의 선언이자, 예술이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자리

김정명은 학생들에게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긴다”고 강조해왔다. 수평적 사고가 동시대 시각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면, 수직적 사고는 예술사·정신사·철학과 같은 시간의 깊이를 말한다. 이번 전시는 이 두 축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드문 현장을 포착한다. 파편과 영화, 물감과 인쇄물, 역사적 인물과 관람자, 평면과 입체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작가는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매개자로서 예술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질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회고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열린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경의’는 단지 과거를 향한 헌사에 머물지 않고, 파편을 다시 들어 올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창작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선언이다.

마무리하며

부산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 온 김정명은, 그 언어를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계보와 선배·동시대 작가들에 대한 사적인 ‘경의’를 이번 전시에서 드러낸다. <그들에게 경의를>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인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질문이다. 예술이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가. 작가가 물감 파편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소한 잔해에도 누군가의 예술적 DNA가 잠복해 있을지 모른다. 이번 전시는 그 잠복한 유전자를 깨우는 하나의 계기이자, 우리 각자가 어떤 ‘그들’에게 경의를 바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리이다.

B.F.A., Departmen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M.A., Department of Fine Art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Art, Tsukuba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1982–2010)
Professor Emeritus, Pusan National University

| Solo Exhibitions |

- 2025 To Them, With Honor (Gallery MAC, Busan)
Yellow Line, The Face of a Thousand People (Ewell Gallery, Busan)
2024 Unexpected Feelings (KIM's Art Field Museum, Busan)
2017 Jungmyung KIM (Indipress Gallery, Seoul)
2015 Speech bubble 2001–2012 (KIM's Art Field Museum, Busan)
The Display Case in My Heart (KIM's Art Field Museum, Busan)
2012 A Complete Transformation (Gallery Idm, Busan)
2010 Korean Pop Art–Jungmyung KIM (Shinsegaegallery, Busan)
2008 Special Exhibition – SIPA (Hangaram Museum, Seoul)
Drifting Clouds in a Square (Savina Museum, Seoul)
Kim Jungmyung's Head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2007 Jungmyung KIM (KBS Busan Gallery, Busan)
2006 Heads (KIM's Art Field Museum, Busan)
2003 EMPTY (Suka Art Space, Busan)
2002 Prisoner of Desir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US)
2000 Yellow, LINE (Alternative Space Seom, Busan)
Book Collection 1982–2000 (Kyobo Gallery, Busan)
1998 Book–Jungmyung KIM (LOTTE Gallery, Busan)
1996 Jungmyung KIM (Seoul Group, Seoul)
1993 Jungmyung KIM (Dong Baek Art Center, Busan)
1990 Jungmyung KIM (Chosun Ilbo Art Museum, Seoul)
Jungmyung KIM (Gallery NUVO, Busan)
Jungmyung KIM (Sain Gallery, Busan) etc.

| Group Exhibitions and Artfair |

- 2026 Frieze Seoul – Spotlight (Solo Booth) (COEX, Seoul)
Kiaf SEOUL (COEX, Seoul)
2025 New Painting, Become the Language of life (Kwonjungho Art Museum, Deagu)
Gallery MAC 19th 10–200, Affordable Artworks (Gallery MAC, Busan)
2020 1960–70's Busan Arts (Busan Museum of Art, Busan)
2017 Aesthetic Transformations in Sculpture (Moran Museum of Art, Namyangju)
2012 Durer Raum: Spring & Fantasy (Outdoor Sculptures at the CINEMA CENTER, Busan)
2011 Imagination Virus (Jeonbuk Museum of Art, Jeonbuk)
2010 Busanbiennale (Gwangalli Beach, Busan)
Fantasy Fairy Tale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9 The Head–The Mirror of Humanity (KIM's Art Field Museum, Busa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Korean Sculptur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2007 Reconstructions of Masterpieces (Savina Museum, Seoul)
2005 Communing with Art and Mathematics (Savina Museum, Seoul)
2001 Drawing Pedigree of Busan fine art (Busan Museum of Art, Busan)
2000 History of Western Art (Gongpyeong Art Center, Seoul))
1999 Opening Exhibition (Alternative Space Seom, Busan)
Printmaking, Art, Books (Culture and arts foundation, Seoul)
1998 20th–Century Korean Art: Environment and Art as Seen Through the Busan Region (LOTTE Gallery, Busan)
PICAF (Busan Museum of Art, Busan)
1997 Korean Art of the Year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Seoul)
Korean Art 97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6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ism 1970–1990 (Kumhomuseum, Seoul) etc.

Jungmyung Kim Solo Exhibition 《To Them, with Honor》

To Them, With Honor – An Artistic Lineage Reborn from Fragments

Born in Busan in 1945, Kim Jung Myung has spent more than half a century working across painting, sculpture, objects, and installation, establishing himself as a central figure in Korean contemporary art. Beginning with his Scrap and Red series in the mid–1970s, followed by Frame and Canvas, Calendar, Book, Finger, Speech Bubble, Big Head, and others, he has developed a distinctive visual world that traverses the boundaries between everyday objects and cartoon-like symbols, between history and myth, education and play. Throughout his practice, he has consistently posed a subtle yet incisive question: How do we perceive, articulate, and remember the world?

Having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art education at Keimyung University, Kim taugh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Art from 1982 to 2008. The layers accumulated during his years as educator, researcher, and artist permeate the depth of his work. This exhibition, To Them, With Honor, focuses on his most recent series—Artistic DNA (2021–) and To Them, With Honor (2023–)—and offers a significant moment in which his long-standing formal language is repositioned and expanded within a broader art-historical context.

Artistic DNA Found in Broken Paint

The origin of this exhibition lies in an unexpected accident. When a large acrylic work fell and shattered, the artist recalled traces of Kandinsky, Pollock, Matisse, Picasso, and Monet within the paint fragments. What he perceived in those small chips was not mere material, but "jewels of spirit"—condensed memories of art history, experimentation, and failure.

The Artistic DNA series begins from this moment of recognition. By attaching heads and tails to fragments of paint and arranging them so that they seem to swim across a glass surface, Kim visualizes the moment when art is reborn from its remnants. Here, paint sheds its role as a tool for making an image and instead becomes an autonomous entity that asserts its own presence.

This attitude resonates with Kim's long-standing critique of civilization. In works such as Book, Finger, Speech Bubble, and Big Head, he exposed the tension and emptiness produced by the excess of knowledge and imagery in contemporary life. In Artistic DNA, this critical perspective condenses into the form of "fragments," within which a new generative energy emerges. It becomes the artist's fundamental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follows after critique?

Dialogue with Masterpieces: To Them, With Honor

In the Energy Communion series initiated in 2021, Kim wrinkles printed reproductions of masterpieces to create relief-like surfaces, overlays them with glass, and places his "artistic DNA" forms atop them, thereby interlacing classical imagery with his own formal vocabulary. What matters here is neither reproduction nor parody, but the tension and resonance that arise from the collision of different eras, materials, and images.

The To Them, With Honor series (2023–) expands this approach in a more direct manner. Portraits and symbolic elements associated with Warhol, Basquiat, Picasso, Monet, Manet, and other figures in art history are recomposed through the artist's unique sense of color and form, merging with the energetic materiality of fractured paint to become a new form of sculptural painting.

Recalling the portraits of saints and sages that adorned his childhood home, and the musicians and writers whose images he once pinned to his room, the artist asks: "Why could I never hang the images of the artists who shaped me most?"

For years, an insistence on originality and an aversion to imitation kept him at a distance from such figures. Yet now, he acknowledges that he stands within the continuum shaped by them—that what returns to him today as "honor" is, in part, a recognition of unspoken debts and gritudes. This is not mere homage, but a quiet admission that art lives only within relationships—with predecessors, with others, with time.

Where Horizontal and Vertical Thought Intersect

Kim has long emphasized to his students that "one must see the world where horizontal and vertical thinking intersect." If horizontal thinking embodies contemporaneity—visual culture, social context—vertical thinking embodies the depth of art history, intellectual history, and philosophy. This exhibition captures a rare moment in which these two axes face one another openly.

As fragments and masterpieces, paint and print, historical figures and viewers, flatness and dimensionality intersect and overlap, the artist asks how the energy of art can be carried across past, present, and future. In this sense, To Them, With Honor is at once retrospective, grounded in the present, and open to what is yet to come. Here, "honor" is not only a gesture toward the past, but a declaration of the creative act—the lifting of fragments to grant them new life.

Conclusion

Working from Busan, Kim Jung Myung has built a language that is unmistakably his own. This exhibition brings into visibility the unseen lineage—predecessors, mentors, contemporaries—that made that language possible. To Them, With Honor is both a greeting to the past and a question toward the future: What should art inherit, what should it relinquish, and what must it newly create?

As the artist discovered in the smallest shards of paint, perhaps dormant artistic DNA resides even within the slightest remnants. This exhibition seeks to awaken those quiet genes, inviting each of us to consider: To whom do we offer our honor?